

“-었-’과 결합하는 보조용언의 문법화와 의미적 특성’에 대한 토론문

이동혁(부산교대)

발표자는 ‘-었-’과 결합하는 ‘-고 았다’, ‘-고 자빠지다’, ‘-어 빠지다’, ‘-어 터지다’에 대한 문법화 과정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셨습니다.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두 가지를 발표자에게 질문드립니다.

1. ‘-어 있-’과 결합한 보조용언 구문 ‘-고 았았다’와 ‘-고 자빠졌다’의 상적 의미

문제 현상: 상태 지속의 ‘-어 있-’과 보조용언 구문이 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 지속이 아니라 ‘진행상’의 의미가 됨.

발표자 해설: 이는 보조용언 ‘았았다’와 ‘자빠졌다’에 가시적인 형태로는 ‘있-’이 존재하지 않으나 ‘있다’의 문법적인 자질이 남아 ‘-고’와의 관련성을 맺으면서 ‘진행상’을 나타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. ‘-고 았았다’나 ‘-고 자빠졌다’는 ‘-고 았아 있다’와 ‘-고 자빠져 있다’의 축약형인데 연결어미 ‘-고’는 실제 ‘았아 있다’와 ‘자빠져 있다’ 동사구와 연결된 것으로 이때 ‘았아’와 ‘자빠져’는 존재 동사 ‘있다’의 자세를 의미하는 부사어로 ‘-고’와 문법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서술어는 ‘있다’라고 할 수 있다. 연결어미 ‘-고’와 서술어 ‘있다’가 문법적으로 관련성을 맺으면서 ‘진행상’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.

질문(1): 구종남(2013)에서도 ‘-고 았았다’와 ‘-고 자빠졌다’가 진행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런데 해당 구문의 진행상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은 다릅니다. 구종남(2013:25)의 해설에 따르면 ‘았아 있다’와 ‘자빠져 있다’가 먼저 문법화하여 ‘있다’와 같은 의미를 갖추고, 이것이 ‘-고’와 결합하여 ‘-고 있다’와 같은 진행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이 해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?

질문(2): 발표자의 해설에 따르면, 한 문장에서 ‘있다’의 기능이 둘이 됩니다. 하나는 ‘-고’와 연결되어 진행상이 되고, 다른 하나는 ‘았아’와 ‘빠져’의 수식을 받는 존재 동사가 되는 것이죠. 이 문제는 결국 해당 구문의 통사 구조가 될 텐데, 비록 발표자께서 아직 통사적 제약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

질문(3): “이처럼 보조동사 ‘-고 았았다’와 ‘-고 자빠졌다’는 행위 자세를 나타내는 ‘았다’와 ‘자빠지다’에 ‘-어 있다’가 결합되어 어떤 행위가 지속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상태 지속의 ‘-어 있-’이 축약되면서 ‘았았다’와 ‘자빠졌다’ 형태가 되고”(4쪽)로 미루어 보면, 다음과 같은 문법화 과정이 상정됩니다.

① [VI+-고 [았-[-아 있-]]+다] (지속)

② [VI+-고 [[았+-아]+있-]]+다]

③ [VI+-고 [았-[-았-]]+다] (진행)

‘-고 았았다’와 ‘-고 자빠졌다’가 진행상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①과 ③ 사이에 ②의 과정을 더 두셨는데요. ①에서 이미 문법화하였던 ‘-아 있-’이 ②에서는 다시 어휘화/역문법화(?)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, 자연스럽지 않습니다.

2. ‘았다’와 ‘자빠지다’의 경우 (3)을 들어서 문법화의 보편적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‘빠지다’와 ‘터지다’는 어떤 이유에서 문법화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?